

대학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 1989년과 1994년의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

강 미 혜*

목 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문제 1.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1.4 용어의 정의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3.2 조사도구와 분석방법	4. 연구결과 4.1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경험유·무에 따른 구분 4.2 도서관 이용도 4.3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인식도 4.4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원인 4.5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효과적인 방지책 4.6 도서관의 변화된 시설들의 효율성 4.7 도서관 이미지와 도서관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한 견해 5. 결론 및 논의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활동의 지원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대학도서관의 최근 변화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장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만 힘쓰던 전통적 태도에서 이제는 장서의 이용을 극대화 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대학도서관은 서고의 운영체제를 폐가제에서 개가제로 전환해 가면서 좀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귀중한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은 개가제 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자료

*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
 접수일자 : 1995. 4. 21

의 분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도서관은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이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도난방지시스템의 설치에 자료의 분실을 어느정도는 막는데 효과적이거나 이것만으로는 문제해결에 미흡한 형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홍순영(1993)은 이미 서구에서는 도난방지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이용자들이 도난방지시스템의 작동원리를 파악해 감에 따라 자료의 분실율도 다시 증가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더 상세한 원인규명과 방지책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리하여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정도와 태도를 살펴보고 그들이 분실과 훼손을 행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효과적인 방지책에는 어떤것이 있는지를 알아 보려는 것이다.

1.2 연구문제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인식도는 어떠한가?

셋째, 학생들의 도서관의 환경변화에 대한 효율성의 척도는 어떠한가?

넷째, 학생들의 도서관 이미지와 도서관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다섯째,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여섯째,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방지책은 어떠한가?

일곱째,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인식도와 견해는 조사연도에 따라 어떠한가?

1.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비추어 대학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및 견해를 주요 범위로 정하였다. 조사대상 도서관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설문지

의 내용이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점과, 분실과 훼손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일부 학생들이 솔직한 답변을 기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설문지의 문항작성에서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들 가운데 책자형자료들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 졌다는 점과, 분실과 훼손에 관계되는 문항들을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1.4 용어의 정의

- 1) 도서관 자료: 도서관 자료에는 책자형자료(단행본, 연속간행물, 논문 등)와 비책자형자료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책자형자료만으로 한정한다.
- 2) 분실: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분실에는 첫째, 대출절차를 밟지 않고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와 둘째,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전자를 중심으로 한다.
- 3) 훼손: 도서관 자료의 일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4) 대체 시간과 비용: 분실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다시 구입하거나 보수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말한다.
- 5) 환경변화: 도서관 시설에 대한 변화를 뜻한다. 예를 들어 바코드시스템의 설치와 복사카드를 이용한 자율복사실의 운영 그리고 칼라복사기의 사용, 도서관 내부의 보관함 설치와 카피스탠드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2. 선행연구

대학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관한 조사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료의 이용과 보존에 관해 최근에 수행한 홍순영(199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홍순영은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이 이제는 자료의 개가제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1) 카메라로 사진자료나 그림자료 등을 찍을 수 있는 장치
 2) 조사대상 45개 도서관 중 19개(82.5%) 도서관이 1993년 현재 개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가제 도서관 중 9개(64.3%) 도서관이 개가제로 전환할 계획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개가제의 도입은 외국 도서관에서 처럼 도난방지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결과이지만 이제는 이용자들이 이 시스템 작동의 원리를 파악해 감에따라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료의 도난과 훼손이 증가해 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자료이용과 보존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1) 업무의 전반적 전산화, 2) 이용도가 높은 핵심장서와 신간자료는 개가제로 하되 이용율이 높지 않은 자료는 폐가제로 운영을 하여야 할 것 등이다. 그리고 컴퓨터와 로봇을 이용한 자동보관과 검출시스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외국의 연구로는 몇개의 사례연구를 들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rtin(1973)은 대학도서관의 정기간행물 훼손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92개의 조사도서관중 80%인 74개의 도서관으로부터 정기간행물의 훼손을 보고받았고 이들중 47%에 해당하는 43개의 도서관으로부터는 훼손된 정기간행물들을 microform으로 대체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Gouke와 Murfin(1980)의 연구와 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의 보고서(1981) 등을 보면 정기간행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Gouke와 Murfin은 3년동안 홍보활동을 행한 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훼손율을 15%로 감소시킴으로써 홍보활동이 도서관 자료의 훼손율을 줄일 수 있다는 그들의 가설을 입증하였다. 이 밖에도 그들이 제시한 방지책에는 복사시설의 서비스를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Hendrick와 Murfin(1974)은 Kent State University 도서관의 이용조사에서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 자료의 훼손에 대한 태도, 복사기 사용, 벌칙과 자료대치, 그리고 가능한 해결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그 후 Weiss(1981)가 Hendrick와 Murfin의 연구문제로 재조사한 결과에서는 자료의 훼손이 학교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범학생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자료의 분실이나 훼손행위와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간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복사기 시설의 강화는 자료의 분실과 훼손문제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는 이론도 지지받지는 못하였다.

Beach와 Gapen(1977)은 Ohio State University의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의 도절행위에 대한 동기를 조사하였다. 표본으로 446명을 선정하여 도서관 자료의 도절자와 비도절자를 나눈 후 도절행위에 대한 동기요인을 1) 도서관에 대한 요인, 2) 교육제도에 대한 요인, 3) 대학에 대한 요인, 그리고 4) 범죄적 요인 등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거의 모두가 도절행위는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절반이 도절행위는 불법적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료를 도절하는 동기는 대부분 충동적이고 개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도서관의 구조, 교육제도, 및 대학에 대한 요인 등과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었고 그 대신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절자는 비도절자보다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절의 첫째 요인은 자료비였으며 둘째요인은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경쟁심리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료의 도절행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학교내에서의 문제로만 끝나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Pedersen(1990)은 1988년 Emporia State University의 도서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집단은 전교생인 5,134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5%인 235명을 16개 학과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후 학기 중 2주동안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은 학생들의 도서관과 도서관 봉사에 대한 무지와 불만족, 분실자료의 대체비용과 소요시간, 타인의 필요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작성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자료를 훼손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하여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다만 그때 그때의 상황적 조건들이 학생들을 분실과 훼손행위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상당수의 무경험자들도 때때로 페이지를 오리거나 자료를 몰래 갖고 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음을 시인하였다.

이상에서 연구된 외국 도서관에서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과는 문화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의 문제를 구상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

3. 연구방법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자료분실과 훼손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도와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에 의한 접근방법을 활용하고자 했다.

3.1 조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덕성여자대학교 전학년의 재학생으로 한정했다(대학원생은 본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조사방법은 심층조사방법(longitudinal survey method)으로 1차와 2차 시기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시기는 1989년 9월 네째주의 일주일 동안이었으며, 2차 시기는 5년후인 1994년 9월 네째주의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다. 표본은 1989년 당시의 전체 재학생수(4,842명)의 10%인 480명과 1994년의 전체 재학생수(5,180명)의 10%인 540명을 (24)(26)학과당 20명/학년별로 나누어 무작위로 추출한 학생들에게 각 학과의 조교를 통해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토록 하였다. 학년별 및 계열별로 배부한 설문지의 회수율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설문지 배포와 그 회수율

학 년	1989			1994		
	배포수	회수수	회수율(%)	배포수	회수수	회수율(%)
1	120	62	51.6	135	104	77.0
2	120	76	63.3	135	92	68.1
3	120	88	73.3	135	107	79.2
4	120	99	82.5	135	112	82.9
합 계	480	325	67.7	540	416	76.8

<표 2> 계열별 설문응답인원

계 열	1989		1994	
	재학생(%)	응답자(%)	재학생(%)	응답자(%)
인 문	1,256(25.9)	98(7.8)	1,422(30.2)	134(9.4)
사 회	2,372(28.3)	98(4.1)	1,244(30.2)	99(7.9)
자 연	1,387(28.7)	79(5.6)	1,650(24.3)	79(4.7)
약 학	332(6.7)	32(9.9)	331(9.8)	31(9.4)
예 술	505(10.4)	18(3.5)	533(5.5)	52(9.7)
합 계	4,842(100.0)	325(6.2)	5,180(100.0)	416(8.2)

3.2 조사도구와 분석방법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도구로는 선다형 설문지로서 19개의 기본문항을 작성하였으며 1994년도의 문항에 도서관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항 1개를 추가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도,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인식도, 도서관의 이미지와 도서관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한 태도 등과,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원인 및 효과적인 방지책에 대한 의견 등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먼저 회수된 설문지를 문항별, 항목별로 답을 구한 다음에,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경험이 없는 학생(가), 줄을 치거나 낙서, 또는 접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나), 필요한 부분을 찢어낸 경험이 있는 학생(다), 도서를 무단반출한 경험이 있는 학생(라) 등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크게 무경험자(가)와 유경험자(나,다,라)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년도별로 이 두 집단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조사하였다.

4. 연구결과

4.1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경험유·무에 따른 구분

응답한 총 741명의 학생들을 조사년도별로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경험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표 3>에서 보는 것같이 1989년도의 응답자는 325명으로

<표 3> 분실과 훼손의 경험유·무에 따른 응답자의 구분

구 분	89년도(%)	94년도(%)
가 : 분실과 훼손의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	124(38.2)	237(57.0)
나 : 줄을 치거나 낙서, 접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	183(56.3)	171(41.1)
다 : 필요한 부분을 찢어낸 경험이 있는 학생	15(4.6)	6(1.4)
라 : 도서를 무단반출한 경험이 있는 학생	3(0.9)	2(0.5)
합 계	325(100.0)	416(100.0)

주 4-1) 가 :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무경험자
 나,다,라 :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유경험자

무경험자는 124명(38.2%), 유경험자는 201명(61.8%)으로 나타났고, 1993년도의 응답자는 416명으로 무경험자는 237명(57.0%), 유경험자는 179명(43.0%)으로 나타났다.

4.2 도서관 이용도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도의 실태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면, <표 4>에 보는 것같이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경우 작성한 보고서 수는 6-10회, 도서관에 가는 회수는 2-4회,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1-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경험자의 경우는 작성하는 보고서 수는 6-10회, 도서관에 가는 회수는 0-5회,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1-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경우 보고서 수는 6-10회, 도서관에 가는 회수는 2-4회,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1-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경험자의 경우는 보고서 수가 6-10회, 도서관에 가는 회수는 2-4회,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1-5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4> 도서관 이용도

설문내용	구 분	가(%)		나(%)		다(%)		라(%)	
		89	94	89	94	89	94	89	94
한 학기의 보고서 수	① 0 - 5회	21.4	21.4	30.6	30.1	26.9	33.3	20.2	10.1
	② 6 - 10회	35.4	41.9	34.4	40.0	40.0	27.5	33.3	40.2
	③ 11 - 15회	20.0	18.6	18.7	20.3	20.3	27.7	33.1	30.0
	④ 16회 이상	24.1	18.1	16.3	9.6	12.8	11.5	13.4	19.7
도서관에 가는 회수 (1주)	① 0 - 5회	10.2	13.9	22.6	19.8	36.7	37.2	47.4	26.2
	② 2 - 4회	44.8	45.1	34.4	47.6	20.4	40.8	20.2	49.3
	③ 5 - 7회	34.6	32.7	32.3	22.4	29.2	12.0	20.0	15.1
	④ 8회 이상	10.4	8.3	10.7	10.2	13.7	10.0	12.4	9.4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 (1주)	① 1시간미만	10.1	12.7	9.2	11.4	33.1	30.0	30.7	30.1
	② 1 - 5시간	49.2	54.3	42.3	46.5	47.7	36.7	36.5	34.4
	③ 5 - 10시간	26.2	25.3	31.2	29.8	7.8	23.3	20.0	20.2
	④ 10시간 이상	14.5	7.7	17.3	12.3	11.4	10.0	13.3	15.3

4.3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인식도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인식도를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5-1>에서 보는 것같이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은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46.0%와 유경험자의 51.1%가 쉽다고 생각하였고,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47.0%와 유경험자의 65.5%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따른 처벌은 1989년도와 1994년도의 무경험자와 유경험자의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측의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와 유경험자가 대체로 지금대호가 좋다고 한 반면, 무경험자와 유경험자의 일부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994년도에도 무경험자와 유경험자의 대다수가 그대로가 좋다고 답변한 반면, 무경험자의 42.3%와 유경험자의 35.7%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여 매우 흥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1>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인식도

설문내용	구 분	가(%)		나(%)		다(%)		라(%)	
		89	94	89	94	89	94	89	94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쉬운가?	① 매우쉽다	7.6	5.6	4.7	6.8	25.3	8.4
	② 쉽다	38.4	41.4	38.9	47.5	17.5	83.6	33.7	50.2
	③ 어렵다	38.3	38.4	42.3	34.4	39.7	4.4	0.0	49.8
	④ 매우어렵다	15.7	14.6	14.2	11.3	17.5	3.6	34.1	0.0
도서관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처벌을 알고 있는가?	① 안다	63.3	69.9	73.7	75.4	67.2	22.5	100.0	50.9
	② 모른다	36.7	30.1	26.3	24.6	32.8	77.5	0.0	49.1
도서관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처벌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① 필요없다	2.1	6.3	1.7	4.2	0.0	43.2	0.0	0.0
	② 지금대로좋다	53.4	51.4	54.0	45.6	52.2	50.1	100.0	49.7
	③ 강화되어야함	44.5	42.3	44.3	50.2	47.8	6.7	0.0	50.3

<표 5-2>에서 보는 것같이, 다른 사람이 도서관 자료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의 경우,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49.4%와 유경험자의 35.6%는 그 사람에

게 주의를 준다고 하였으며, 무경험자의 8.6%와 유경험자의 6.6%는 도서관측에 알린다고 응답하였다.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47.1%와 유경험자의 35.1%가 주의를 준다고 하였으며, 무경험자의 13.2%와 유경험자의 3.3%는 도서관측에 알린다고 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그냥 놔둔다와 주의를 준다고 한 학생들은 줄어든 반면, 도서관측에 알린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도서관 자료의 훼손에 대한 문제성의 인식정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훼손된 도서관 자료로 인한 불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24.3%와 유경험자의 11.1%는 자주 있다고 하였고,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31.5%와 유경험자의 26.5%는 자주 있다고 함으로써 1989년도와 마찬가지로 1994년도에도 도서관 자료의 훼손에 대해 이용자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서관 자료의 페이지를 뜯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23.5%와 유경험자의 36.2%는 가끔 있다고 하였고,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20.3%와 유경험자의 46.5%는 가끔 있다고 하였다. 이는 두 년도가 비슷한 비율로 도서관 자료의 훼손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자료의 훼손에 대한 충동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도서관 자료를 무단 반출할 생각을 한적이 있는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8.2%와 유경험자의 52.5%가 있다고 하였고,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23.2%와 유경험자의 54.0%가 있다고 하였다. 1989년도와 1994년도 모두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충동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실이나 훼손의 충동이 느껴지는 자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 유경험자 모두 잡지 → 일반도서 → 미술관련자료 → 논문의 순이었고, 1994년도에는 미술관련자료 → 잡지 → 논문 → 일반도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5-3>에서 보는 것같이, 어느정도의 학생들이 분실과 훼손을 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1989년도와 1994년도의 무경험자 및 유경험자의 대부분이 10%미만으로 추측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분실과 훼손을 행하는 학생들의 수를 비교적 낮게 추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실자료의 수에 대한 학생들의 추측을 살펴보면, 도서관에서 1년에 분실되는 도서가 대략 176권으로 학생들은 1989년도와 1994년도의 무경험자와 유경험자의 대부분이 100권 미만으로 추측하였다. 분실자료의 대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1989년도와 1994년도의 무경험자와 유경험자의 상당수가 6개월이내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응답이 실제로 소요되는 대체기간인 6-12개월과 비교하여 볼때 학생들은 분실자료를 대체하는 일이 매

우 간단하고 단순한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실자료를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61.5%와 유경험자의 64.6%가 100만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43.7%와 유경험자의 35.1%가 1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함으로써 이 또한 실제로 1년에 평균 179만원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했을때 학생들은 분실자료에 대한 대체비용을 적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인식도

설문내용	구 분	가(%)		나(%)		다(%)		라(%)	
		89	94	89	94	89	94	89	94
만약 누군가가 도서관자료를 훼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는가?	1 그냥 놔둔다	41.2	39.7	39.6	41.3	37.3	43.3	100.0	100.0
	2 주의를준다	49.4	47.1	51.3	48.7	55.0	56.7	0.0	0.0
	3 도서관에 알림	8.6	13.2	12.1	10.0	7.7	0.0	0.0	0.0
페이지가 없는 도서, 잡지, 논문 등으로 불편을 겪은 일은 없었는가?	1 전혀없다	4.3	7.4	10.4	8.3	13.6	16.4	32.3	49.8
	2 가끔있다	71.4	61.1	71.5	62.5	73.1	33.1	67.7	50.2
	3 자주있다	24.3	31.5	20.1	29.2	13.3	50.5	0.0	0.0
도서, 잡지, 논문 등의 페이지를 뜯으려고 생각한 적은 있는가?	1 전혀없다	76.5	75.4	78.5	70.8	12.7	18.7	66.7	0.0
	2 가끔있다	23.5	20.3	21.5	26.1	87.3	64.1	0.0	49.5
	3 자주있다	0.0	4.3	0.0	3.1	0.0	17.2	33.3	49.5
도서, 잡지, 논문 등을 무단반출할 충동을 느낀적이 있는가?	1 전혀없다	91.8	75.6	90.2	68.1	52.3	69.7	0.0	0.0
	2 가끔있다	8.2	23.2	9.8	27.3	47.7	30.3	100.0	100.0
	3 자주있다	0.0	1.2	0.0	4.6	0.0	0.0	0.0	0.0
분실이나 훼손의 충동이 가장 느껴지는 자료는?	① 일반도서	29.1	17.3	27.2	14.3	16.1	0.0	66.7	1.0
	② 잡지	33.3	32.9	33.5	54.3	30.3	16.7	33.3	49.5
	③ 논문	14.7	9.5	15.2	13.2	21.5	50.1	0.0	0.0
	④ 미술관련자료	23.9	40.3	24.1	18.2	32.1	33.2	0.0	49.5

〈표 5-3〉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인식도

설문내용	구 분	가(%)		나(%)		다(%)		라(%)	
		89	94	89	94	89	94	89	94
우리 학교 몇%의 학생들이 분실과 훼손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10% 미만	69.3	55.4	63.1	54.4	40.5	33.5	67.7	49.5
	② 10-30% 미만	23.7	34.6	25.3	20.8	53.4	17.5	32.3	49.5
	③ 30-50% 미만	4.9	7.6	9.3	20.6	5.7	33.1	0.0	1.0
	④ 50% 미만	2.1	2.4	2.3	4.2	0.4	15.9	0.0	0.0
1년에 분실되는 도서는 대략 몇권정도라고 생각하는가?	① 100권 미만	78.6	66.2	75.1	69.2	73.4	76.4	100.0	50.2
	② 100-300권	16.4	26.3	19.3	20.2	20.3	20.2	0.0	49.8
	③ 300-500권	3.2	4.3	4.2	9.4	4.6	2.1	0.0	0.0
	④ 500권 이상	1.8	3.2	1.4	1.2	1.7	1.3	0.0	0.0
분실된 자료를 대체하는데 드는 시간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가?	① 1-3개월	38.1	23.4	37.2	22.1	48.2	22.1	33.1	0.0
	② 3-6개월	45.3	42.6	44.5	41.7	40.4	21.4	33.3	49.5
	③ 6-12개월	7.4	15.5	7.5	20.8	5.8	37.3	0.0	49.5
	④ 1년 이상	9.2	18.5	10.3	15.4	5.6	19.2	33.6	1.0
분실자료를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가?	① 100만원 미만	61.5	43.7	59.9	28.2	67.4	27.5	66.7	49.6
	② 100-500만원	26.5	26.3	29.5	53.2	27.8	21.7	33.3	49.4
	③ 500-1000만원	8.7	28.6	8.5	14.2	4.9	33.6	0.0	0.0
	④ 1000만원 이상	3.3	1.4	2.1	4.4	0.0	17.2	0.0	0.0

4.4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원인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직원들의 업무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게 한다. 또한 원하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도 불편과 실망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용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점, 도서관에 대한 불만, 분실이나 훼손하는 도서의 대체시간과 비용에 대한 지식 부족, 타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그리고 분실이나 훼손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의식구조 등의 여러가지 상황이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결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학

생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것같이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는 1989년도와 1994년도의 무경험자와 유경험자의 대부분이 높게 나타났다. 분실이나 훼손된 도서관 자료의 대체시간과 비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13.4%와 유경험자의 29.8%으로,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34.1%와 유경험자의 22.5%으로 나타났다. 분실이나 훼손을 무의식적으로 행한다는 견해에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40.3%와 유경험자의 62.7%으로,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7.1%와 유경험자의 43.6%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장서수의 부족 등 도서관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해 무경험자의 33.7%와 유경험자의 22.5%가 동의함으로써 도서관의 환경변화는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원인

설 문 내 용	가(%)		나(%)		다(%)		라(%)	
	89	94	89	94	89	94	89	94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음	75.1	77.3	80.5	75.3	73.4	70.1	66.7	51.1
복사비나 책값의 여유가 없음	9.2	15.3	12.2	10.2	26.3	22.8	0.0	0.0
자료의 대체시간과 비용 모름	13.4	34.1	20.1	18.2	20.1	17.5	49.4	32.0
무의식적으로 행함	40.3	7.1	54.6	60.4	67.1	70.5	66.5	0.0
도서관/학교에 대한 불만으로	7.3	33.7	10.8	8.1	20.1	10.2	32.5	49.3

4.5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효과적인 방지책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책에 관한 7개의 문항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도서관에 가방 등 소지품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7.7%와 유경험자의 15.7%가,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5.5%와 유경험자의 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도서관 입구에 인원을 배치해 소지품을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2.3%와 유경험자의 0.7%가,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2.2%와 유경험자의 1.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실이나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53.9%와 유경험자의 62.8%가,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37.8%와 유경험자의 69.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1989년도와 1994년도 모두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실과 훼손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 스스로가 제재조치가 약했기 때문에 행하게 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도서관 자료의 대체비용과 시간 등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문제점들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70.5%와 유경험자의 70.1%가,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44.3%와 유경험자의 58.5%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년도간의 동의정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여 준다. (5)대학도서관의 공공성을 인식시키는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53.1%와 유경험자의 40.3%가,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51.2%와 유경험자의 1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경험자의 경우 이 방안에 대한 동의정도가 현저하게 감소함을 보여 준다.

(6)무료복사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66.3%와 유경험자의 63.8%가, 1994년도의 무경험자의 67.7%와 유경험자의 80.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료복사기의 운영을 학생들이 매우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7)복본을 많이 비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58.2%와 유경험자의 71.0%가,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99.6%와 유경험자의 83.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본을 많이 비치하는 것은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효과적인 방지책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주는 도서관에 가방 등의 소지품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도서관 입구에 인원을 배치해 소지품을 조사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분실이나 훼손 당사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하거나 복본을 많이 비치하는 방안은 효과적인 방지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표 7).

4.6 도서관의 변화된 시설들의 효율성

〈표 8〉에 보는 것같이, 학생들은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을 방지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으로 (1)바코드시스템의 설치, (2)복사카드를 이용한 자율복사실의 운영,

〈표 7〉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효과적인 방지책

설 문 내 용	가(%)		나(%)		다(%)		라(%)	
	89	94	89	94	89	94	89	94
가방을 못갖고 들어가게 함	7.7	5.5	6.2	5.0	7.5	17.3	33.5	0.0
도서관 입구에 인원을 배치	2.3	2.2	2.1	3.2	0.0	0.0	0.0	0.0
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53.9	37.8	59.2	39.3	60.7	67.8	68.5	100.0
자료의 대체비용 등 인식시킴	70.5	44.3	75.3	49.4	67.4	61.7	67.8	64.4
공공성에 대한 이용자 교육	53.1	51.2	53.8	52.2	67.3	0.0	0.0	0.0
무료 복사기를 운영	66.3	67.7	63.3	74.6	61.1	90.7	67.2	75.6
복본을 많이 비치	58.2	99.6	64.1	85.3	61.0	90.5	88.0	75.5

〈표 8〉 도서관의 변화된 시설들의 효율성(1994)

설 문 내 용	가(%)	나(%)	다(%)	라(%)
바코드 시스템에 의한 출입통제 강화	53.8	54.6	50.7	50.3
복사카드를 이용한 자율복사실 운영	30.8	34.1	17.5	50.7
칼라복사기의 사용	14.5	17.8	17.4	0.0
도서관 내부의 보관함 설치	18.2	17.4	17.3	0.0
카피스텐드의 사용	30.1	35.5	0.0	0.0

(3) 카피스텐드의 사용, (4) 도서관 내부의 보관함 설치, 그리고 (5) 칼라 복사기의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4.7 도서관 이미지와 도서관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한 견해

〈표 9〉에서 보는 것같이 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53.8%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유경험자의 46.2%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38.3%와 유경험자의 48.9%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상당수의 학생들이 도서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직원의 도움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53.5%가 긍정적으로, 반면에 유경험자의 51.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50.8%가 긍정적으로, 반면에 유경험자의 56.8%가 역시 부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학생들은 평소에 도서관 직원으로부터 별로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어느정도 얻는지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58.7%가 긍정적으로, 반면에 유경험자의 50.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63.3%가 긍정적으로, 반면에 유경험자의 77.5%가 부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도서관의 자료이용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수나 직원에 대한 도서관 정책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66.7%와 유경험자의 64.0%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반면에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70.5%와 유경험자의 63.1%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사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항목으로, 먼저 복사료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78.6%와 유경험자의 79.3%가, 반면에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78.9%와 유경험자의 87.4%가 비싸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복사실의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는 무경험자의 91.6%와 유경험자의 94.0%가, 반면에 1994년도에는 무경험자의 87.7%와 유경험자의 98.2%가 짧다고 응답함으로써 복사실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일수록 복사실의 운영시간을 짧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방지책을 찾아보고자, 1989년과 1994년에 덕성여자대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인식도와 견해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것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경험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실태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과제에 대해 36.5%의 학생들이 한 학기에 가장 많이 작성하는 보고서 수로 6-10회를 들고 있으며, 이 항목에 대해 분실과 훼손의 무경험자의 38.6%와 유경험자의 35.9%가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62.6%의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장 많

〈표 9〉 도서관 이미지와 도서관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한 견해

설문내용	구 분	가(%)		나(%)		다(%)		라(%)	
		89	94	89	94	89	94	89	94
도서관에 대해 전체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1 그렇다	11.6	11.2	10.2	9.1	0.0	17.4	0.0	0.0
	2 조금 그렇다	42.2	50.5	43.4	44.2	57.8	33.2	48.8	50.3
	3 전혀 아니다	46.2	38.3	46.4	46.7	42.2	50.4	50.2	49.7
도서관 직원이 도움을 준다	1 그렇다	6.3	5.2	13.4	4.2	7.3	7.1	0.0	0.0
	2 조금 그렇다	47.2	45.6	49.3	40.5	26.3	27.6	50.6	50.2
	3 전혀 아니다	46.5	49.2	37.3	55.3	66.4	65.3	49.4	49.8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측이 항상 충족시켜준다	1 그렇다	19.2	12.1	13.6	4.4	0.0	0.0	3.2	0.0
	2 조금 그렇다	49.5	51.2	48.2	35.5	49.6	17.5	33.5	10.0
	3 전혀 아니다	31.3	36.7	38.2	60.1	50.4	82.5	63.5	90.0
교수나 직원을 위한 관대한 정책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	1 그렇다	20.1	28.3	20.4	30.2	20.2	33.3	33.4	20.0
	2 조금 그렇다	46.6	42.2	45.3	42.2	39.4	33.4	33.4	30.4
	3 전혀 아니다	23.3	29.5	34.3	27.6	40.4	33.3	33.2	49.6
복사비의 가격이 비싸다	1 그렇다	32.5	28.8	35.5	42.2	32.3	30.0	33.1	39.5
	2 조금 그렇다	46.1	50.1	47.2	46.7	47.6	53.3	42.4	50.5
	3 전혀 아니다	21.4	21.1	17.3	11.1	20.1	16.7	23.5	10.0
복사실의 운영 시간이 짧다	1 그렇다	68.1	64.3	67.2	68.7	60.2	50.5	50.0	49.7
	2 조금 그렇다	23.5	23.4	27.1	26.4	27.5	49.5	50.0	50.3
	3 전혀 아니다	8.4	12.3	5.7	5.2	12.3	0.0	0.0	0.0

이 가는 회수로 일주에 2-7회를 들고 있으며, 이 항목에 대해 무경험자의 78.6%와 유경험자의 57.3%가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46.6%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일주에 1-5시간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이 항목에 대해 무경험자의 51.7%

와 유경험자의 40.7%가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분실과 훼손의 무경험자는 유경험자보다 대체적으로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자료의 훼손이 학교생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모범학생들에 의해 주로 행해지고 있다는 Weiss(1981)의 연구결과와 학업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경쟁심리때문이라고 하는 Beach와 Gapen(1977)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2)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경험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인식도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과제에 대해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행위는 무경험자의 46.5%와 유경험자의 58.3%가 쉽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무경험자의 48.2%와 유경험자의 35.3%가 다른 사람이 자료를 훼손하는 것을 보면 주의를 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무경험자의 10.9%와 유경험자의 4.9%는 도서관측에 알린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무경험자의 94.2%와 유경험자의 78.5%가 훼손된 도서관 자료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충동의 항목에서는 유경험자의 58.7%가 도서관 자료의 페이지를 뜯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며, 53.2%는 무단반출할 생각을 한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무경험자와는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16.3%의 무경험자들도 비록 경험은 없지만 분실과 훼손의 충동만은 유경험자와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Beach와 Gapen(1977)의 연구에서 나타난 도절의 동기와 Pedersen(1990)의 연구에서 나타난 상황적 조건의 결과와 유사한 반응이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분실자료의 대체기간과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보다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Gouke와 Murfin(1980)의 지적처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도서관 자료의 훼손율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경험유·무에 따라 학생들이 인지하는 도서관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효율성의 척도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과제에 대해 무경험자, 유경험자는 1)바코드시스템의 설치, 2)복사카드를 이용한 자율복사실의 운영, 3)칼라복사기의 사용은 같았지만, 무경험자는 4)도서관 내부의 보관함 설치, 5)카피스텐드의 사용을 든 반면, 유경험자는 4)카피스텐드의 사용, 5)도서관 내부의 보관함 설치를 들었다.

(4)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경험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도서관 이미지와 도서관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과제에 대해 무경험자의

57.7%가 도서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66.0%가 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에, 유경험자의 47.6%는 도서관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도서관의 봉사에 대해서도 64.1%가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마도 유경험자들이 도서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도서관이나 도서관 직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사시설에 대해서는 무경험자, 유경험자 모두가 복사료가 비싸고 이용시간이 짧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복사시설의 강화를 하나의 방지책으로 제안한 Gouke와 Murfin(1980)의 주장과 일치한다. 반면에 자료의 분실이나 훼손행위와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간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하는 Weiss(1981)의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하다 하겠다.

(5)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경험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과제에 대해 무경험자의 경우 76.2%가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으로, 20.5%가 도서관 장서수의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유경험자의 경우 26.2%가 도서관 자료의 대체시간과 비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53.1%가 무의식적으로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을 행하고 있다고, 그리고 21.8%가 도서관과 학교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게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학생들이 도서관 자료를 도절하는 동기가 대부분 충동적으로 행해지며, 대학에 대한 불만요인과의 관계가 있다는 Beach와 Gapen(197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Pedersen(1990)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지지하고 있으나 무경험자와 유경험자간에 차이가 발견됨으로써 차이가 없었다는 그의 결과와는 상이하다.

(6)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경험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방지책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과제에 대해 무경험자와 유경험자 모두가 도서관에 가방 등 소지품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 도서관 입구에 인원을 배치해 소지품을 조사하게 하는 방안은 효과적인 방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 도서관 자료의 대체비용과 시간 등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문제점들을 인식시키는 방안, 무료복사기를 운영하는 방안, 복본을 많이 비치하는 방안등에 대해서는 무경험자, 유경험자 모두가 높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경험자는 대학도서관의 공공성을 인식시키는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복본을 많이 비치하는 방안

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경험자는 자료의 분실이나 훼손의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도서관 자료의 대체비용과 시간 등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문제점들을 인식시키는 방안, 무료복사기를 운영하는 방안, 복본을 많이 비치하는 방안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7)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인식도와 견해는 조사년도에 따라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과제에 대해, 1)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인식도의 경우, 다른 사람이 도서관 자료를 훼손하는 것을 보면 도서관측에 알려겠다는 항목에 대한 무경험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훼손된 도서관 자료로 인해 불편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높아졌다. 또한 학생들이 훼손의 충동을 느끼는 자료가 1989년도의 잡지 → 도서 순에서 1994년도에는 미술관련자료 → 잡지로 바뀌었다. 2)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원인의 경우, 분실이나 훼손된 도서관 자료의 대체시간과 비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항목과, 도서관과 대학교에 대한 불만때문이라는 항목에서 무경험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3)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의 효과적인 방지책의 경우, 무경험자는 도서관 자료의 대체비용과 시간 등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시키는 방안은 비율이 낮아진 반면, 복본을 많이 비치하는 방안에서는 높아졌으며, 유경험자는 도서관 자료의 대체비용과 시간 등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시키는 방안과 대학도서관의 공공성을 인식시키는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은 비율이 낮아진 반면, 무료복사기를 운영하는 방안과 복본을 많이 비치하는 방안은 높아졌다. 4)도서관의 이미지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견해는 두 년도간에 유사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①타인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으며, ②분실이나 훼손을 무의식적으로 행하며, ③분실이나 훼손된 도서관 자료의 대체시간과 비용을 알지 못하며, ④도서관과 대학교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책은, ①복본을 많이 비치하는 방안, ②도서관 자료의 대체비용과 시간 등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시키는 방안, ③분실이나 훼손 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시키는 방안, ④바코드시스템에 의한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⑤대학도서관의 공공성을 인식시키는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⑥복사카드를 이용하여 자율복사실을 운영하는 방안, ⑦칼라 복사기를 사용하는 방안, ⑧카피스탠드를 사용하는 방안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상에서 밝혀진 것들 외에도 도서관 자료의 분실과 훼손에 관계되는 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분석해 나가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만이 효과적으로 새로운 방
지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은 항상 학생
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들의 요구를 수시로 파악, 수렴
하는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도서관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규정. 1985. "장서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덕성여대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280: 39-61.
- 서정미. 1989. "개가제 열람제도에 있어서 자료 망실 책임과 변상의 문제." 도서관보 11: 80-85.
- 양형록. 1965. "도서관 장서의 손망실 처리문제: 봉사활동의 적극화를 위한 전제로서." 김유선 역, 국회도서관보 175: 37-44.
-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세미나 종합보고서. 1987. "장서관리 - 도서분실 현황과 대책: 제3분과 토의보고."
- 정필모. 1964. "도서관 자료의 손실과 소모문제." 도협월보 5(8): 10-12.
- 홍순영. 1993. "대학도서관의 자료보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성진. 1987. 도서관학 통론. 서울: 아세아 문화사.
- Alemna, Anaba. 1992. "Library Security, Book Theft and Mutilation: A Study of University Libraries in Ghana." Library & Archival Security 11(2): 23-35.
- Allen, R. V. 1970. "Some Problems are International: Damaged and Defaced Books." Library of Congress Information Bulletin 29: 461-462.
- American Libraries. 1991. "Inside Thief Pleads No Contest [To Sealing Rare Books and Documents from the Univ. of Pennsylvania]." 22: 20.
- Ardern, L.L. 1972. "Disgrace Abounding: The Problem of Thefts from University Libraries." New Library World 73: 257-258.
- Assoc. of Research Libraries. 1978. Theft Detection and Prevention in Academic Libraries. Washington.
- Atwood, Thomas & Carol Wall. 1990. "A Case Study of Periodical Mutilation in a University Serials Collection." Library & Archival Security 10(1): 35-42.
- Bahr, Alice H. 1981. Book Theft and Library Security Systems, 1981-82. Whiteplains, N.Y.: Knowledge Industry.
- Bahr, Alice H. 1984. "Electronic Security for Books." In. Protecting the Library, ed.

- Lincoln, Alan J. 29-38.
- Beach, Allyn and Kaye Gopen. 1977. "Library Book Theft: A Case Stud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8(2): 118-128.
- Daugherty, Robert A. 1977. *Preliminary Report on Book Losses in Libraries: a Pilot Opinion Survey*. Arlington, Va.: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 Flagg, G. 1983. "Librarians Meet to Fight Book Thieves: Booksellers, Law Officials Also Attend Oberlin Conference on Theft." *American Libraries* 14:648-650.
- Gouke, Mary Noel and Marjorie Murfin. 1980. "Periodical Mutilation: The Insidious Disease." *Library Journal* 105: 1795-1797.
- Griffith, J.W. 1978. "Library Thefts: A Problem That Won't Go Away." *American Libraries* 9: 224-227.
- Hanff, Peter E. 1984. "Library Theft Preven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45: 289-290.
- Hendrick, Clyde and Marjorie Murfin. 1974. "Project Library Ripoff: A Study of Project Librar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35: 402-404.
- Ladenson, Alex. 1977. "Library Security and the Law."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8(2): 109-117.
- Martin, Ron. 1973. "Microforms and Periodical Mutilation." *Microform Review* 2: 6-8.
- Niland, Powell & W.H. Kurth. 1976. "Estimating Lost Volumes in a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37: 128-136.
- Pedersen, Terri L. 1990. "Theft and Mutilation of Library Material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51 (2): 120-128.
- "University of Nebraska Reports Sharp Rise in Mutila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2: 341-347.
- Varner, Carroll. 1983. "Journal Mutilation in Academic Libraries." *Library & Archival Security* 5(4): 19-29.
- Walch, Timothy. 1977. "The Improvement of Library Securit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8(2): 100-103.
- Weiss, Dana. 1981. "Book Theft and Mutilation in a Large Urban University Librar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2: 341-347.

ABSTRACT

**An Empirical Study about Students' Attitudes
over the Loss and Mutilation of Research
Materials in University Library**
— with an Emphasis on Research Analyses of 1989 and 1994 —

Mia Hye Ka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attitudes of students, who are used to study at the Library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concerning about the loss and mutilation of books, articles and other research materials in a university library, and to take measures for preventing the library materials from being lost and mutilated.

This study made the surveys of student's recognition about the immoral behaviors like larcenous and mutilating acts, the causes of such destructive works and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to keep library materials in good condition, including student's opinion about library services. The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in two times with the same questionnaire on randomly selected 480 students and 540 students of 1989 and 1994 respectively. The sample size is estimated to reach each 10% of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of 1989 and 1994 in Duksung Women's University. And then,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one is a group that has had experiences stealing and mutilating the materials from the Library of the University. The other is another group which has done none of them. Thereafter the responses of the two groups are analyz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the students' behaviors between 1989 and 1994, and thereby finding out important factors inviting the loss and mutilation and accordingly improving effective checks to deter the students from stealing and mutilating the library materials.

Some of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ed in this paper are pointed out as follows:

- 1) The students who has experienced neither stealing nor mutilating the library materials visited the library more frequently and are more serious about such destructive behavior as stealing and mutilating.
- 2) The attitudes of the students about services and equipments supplied by the library are slightly different among the students who experienced such immoral activities or not. For example, the experienced students had more preference about an application of self-help duplicating machine being able to use card.
- 3) To prevent the students from stealing and mutilating the library materials, the non-experienced students demanded an education for them to duly recognize the public interest of the library and also suggested to keep more duplicate materials ready in the library, meanwhile, the experienced students indicated strongly such proposals as strict regulations against stealing and mutilating behaviors, having a correct understanding of costing a lot of time and money to restore the damaged materials to their original state and keeping many duplicates ready in the library.
- 4) It appears to be that there were different between the experienced and non-experienced students concerning causes invited stealing and mutilated behaviors.
- 5) Over all, the number of the non-experienced students is more increased in 1994 than that of 1989.

참고문헌

- 박규정. 1985. "장서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덕성여대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280: 39-61.
- 서정미. 1989. "개가제 열람제도에 있어서 자료 망실 책임과 변상의 문제." 도서관보 11: 80-85.
- 양형록. 1965. "도서관 장서의 손망실 처리문제: 봉사활동의 적극화를 위한 전제로서." 김유선 역, 국회도서관보 175: 37-44.
-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세미나 종합보고서. 1987. "장서관리 - 도서분실 현황과 대책: 제3분과 토의보고."
- 정필모. 1964. "도서관 자료의 손실과 소모문제." 도협월보 5(8): 10-12.
- 홍순영. 1993. "대학도서관의 자료보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성진. 1987. 도서관학 통론. 서울: 아세아 문화사.
- Alemna, Anaba. 1992. "Library Security, Book Theft and Mutilation: A Study of University Libraries in Ghana." Library & Archival Security 11(2): 23-35.
- Allen, R. V. 1970. "Some Problems are International: Damaged and Defaced Books." Library of Congress Information Bulletin 29: 461-462.
- American Libraries. 1991. "Inside Thief Pleads No Contest [To Sealing Rare Books and Documents from the Univ. of Pennsylvania]." 22: 20.
- Ardern, L.L. 1972. "Disgrace Abounding: The Problem of Thefts from University Libraries." New Library World 73: 257-258.
- Assoc. of Research Libraries. 1978. Theft Detection and Prevention in Academic Libraries. Washington.
- Atwood, Thomas & Carol Wall. 1990. "A Case Study of Periodical Mutilation in a University Serials Collection." Library & Archival Security 10(1): 35-42.
- Bahr, Alice H. 1981. Book Theft and Library Security Systems, 1981-82. Whiteplains, N.Y.: Knowledge Industry.
- Bahr, Alice H. 1984. "Electronic Security for Books." In, Protecting the Library, ed.